

2024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Vol.2

ISSUE FOCUS



ISSUE FOCUS

성인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과제

ISSUE



- > 인공지능(AI), 로봇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직업과 학습에 혁신을 가져왔다.
- > 일, 직업, 경력을 위한 생애 진로개발은 개인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에 모두 중요하다.
- > 성인들의 진로개발을 위해 평생학습은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

과거 진로교육은 초중등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여겨졌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직업선택·직업적응·직업전환 등 생애 전반에서 진로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서울 시민의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의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CEDEFOP¹⁾(2008)는 체계적인 국가 진로개발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개인의 진로관리기술을 향상시키고, 직무만족과 직업생활 질을 높여 사회통합과 형평성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실업 · 보건 · 건강 · 범죄 등의 국가 비용을 절감하게 됨으로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짐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대학, 직업교육, 공공고용서비스는 성인의 진로개발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일–여가’가 상호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 진로지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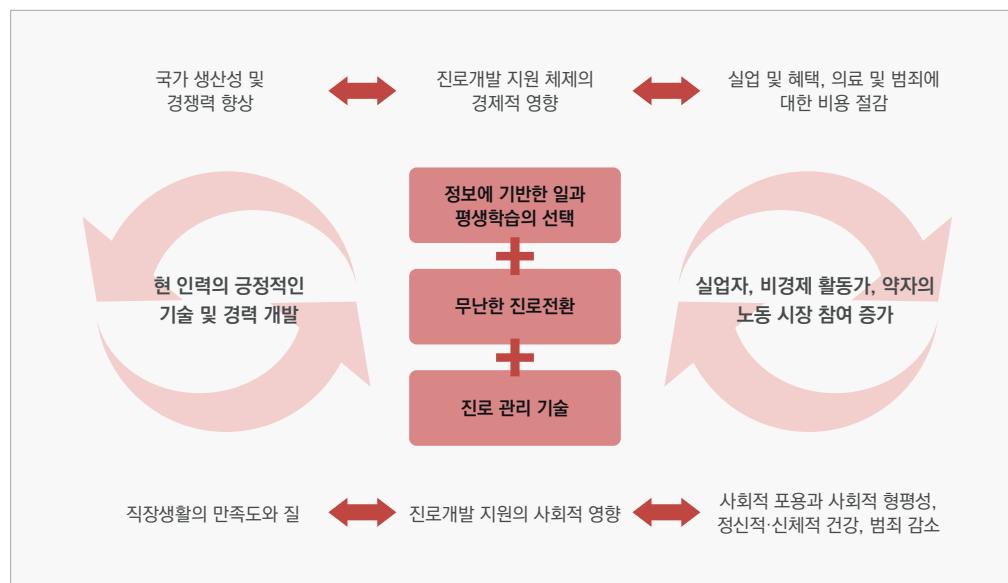
* 진로(career) : 개인이 유치원부터 직업 은퇴에 이르기까지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생애역할, 학습, 일, 직업의 연속성을 의미. 객관적인 의미에서 진학, 졸업, 취업, 직장 적응, 직업 전환, 은퇴 준비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일을 의미하는 동시에 일에 대한 열망, 기대, 가치, 요구 등 개인의 주관적 요소들을 포함. 이러한 의미를 종합하면 일생 동안 개인의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 겪게 되는 경험의 총체로 보수를 받는 일로서의 직업만이 아니라, 개인이 일생동안 수행하는 다양한 생애 역할 및 경험의 총체를 지칭하는 개념

*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 : 인생 전반에 걸쳐 추구하는 일의 총체들이 개인의 생애목표와 균형을 이루면서 외부환경과 자신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을 의미. 즉, 한 개인이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삶의 맥락(단계)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경험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활동

1) CEDEFOP : 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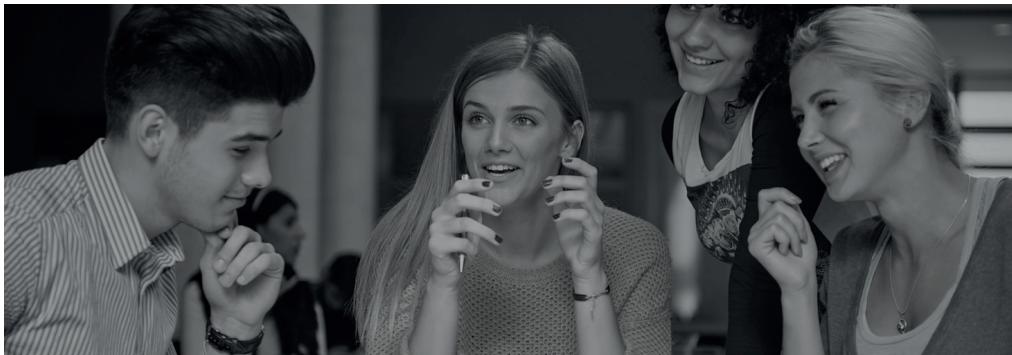
진로개발 지원 체제의 개인 · 사회 · 국가적 성과

체계적인 진로개발 지원 체제는 개인이 일과 평생학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진로전환과 진로 관리 기술에 도움을 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기술 및 경력 개발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진로개발 지원체제는 개인의 직장 및 일상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형평성을 증진시켜 실업, 보건, 범죄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됨. 이로써 국민의 진로개발 지원 체제가 구축된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짐.



[출처] CEDEFOP(2008). Career development at work: a review of career guidance to support people in employment. Cedefop Panorama series: 151.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재구성.

진로지도(상담) · 진로교육 등 평생 진로개발 지원 장치의 중요성



학교 졸업 후 성인의 지속적인 경력관리 지원 필요

국제노동기구(2021a)는 진로지도(상담) · 진로교육 등의 진로개발 지원 장치가 나이 · 성별 ·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든 자신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교육, 훈련과 직업선택 · 전환을 가능케 하고 그들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강조함.

모든 시민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은 국가적 전략이자 정책이어야 함

진로개발 지원 장치 역할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선택하게 될 직업선택 뿐 아니라, 개개인의 경력, 포부, 흥미, 적성, 학업성취도, 재능 그리고 기술들이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짐. 따라서 국가인적자원 개발과 모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성취를 이루는 국가적 전략이자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함.

평생 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은 국가 공공정책의 핵심

과거 진로교육이 공교육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차원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점차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고용 · 복지 · 교육정책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인식되기 시작함(CEDEFOP, 2004).

즉, 국가는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개발이 어려운 개인에게 우선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 교육 · 훈련 및 노동시장의 접근 기회와 정보가 봉쇄된 개인에게 교육 · 훈련으로의 진입과 노동시장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평등 및 통합을 개선하는 윤활유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체계적인 국가의 평생 진로개발 지원체제는 대국민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과 적극적인 고용 정책(active labour policy)을 촉진하는 주요한 가교가 됨. 따라서 취약한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평등 및 통합에 기여(Watts & Sultana, 2003)하는 국가 공공정책과 진로교육 간의 상호 호혜적 역할이 중요해짐.

하지만 진로개발 지원 제도적 장치들의 균열 · 분절 · 순기능 왜곡 지속



**대학입시 중심의
중등단계 학교 교육정책으로
학령층 진로교육
순기능 역행**

초·중등교육의 경우,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공교육에서 진로교육·진로지도(상담)·진로체험 등이 강화됨. 진로교육법 제1장 4조는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 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순기능은 대학입시 교육 우선 정책으로 국·영·수 등의 주요 과목에 비하여 발휘되지 못함.

**학위 중심의 대학과
지식 · 기술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이수율이 50%수준²⁾으로 교육의 보편화 시대를 살고 있음. 그러나 대학의 경우, 여전히 고등교육이 평생교육의 통로로 활용되기보다는 20대 청년층의 학위와 졸업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임. 직업교육(훈련)은 학력중심사회 여파로 이류 교육 시장에 머물고 있음.

한편, 직업교육(훈련)은 단순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만을 강조하고 있어 비학령층 성인들의 진로인식·탐색·설계를 위한 진로개발 역량 지원 기능이 여전히 부족함.

**공공고용서비스의
행정 지원 우선과 직업상담
기능 취약**

공공고용서비스(PES:Public Employment Service) 경우, 실직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직장인, 경력전환자, 은퇴준비자 등 일반 성인들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이 매우 위축되어 있음. 지역평생교육기관 역시 다양한 성인 특성을 고려하는 포괄적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제도, 인프라, 담당인력 전문성 등 다양한 장벽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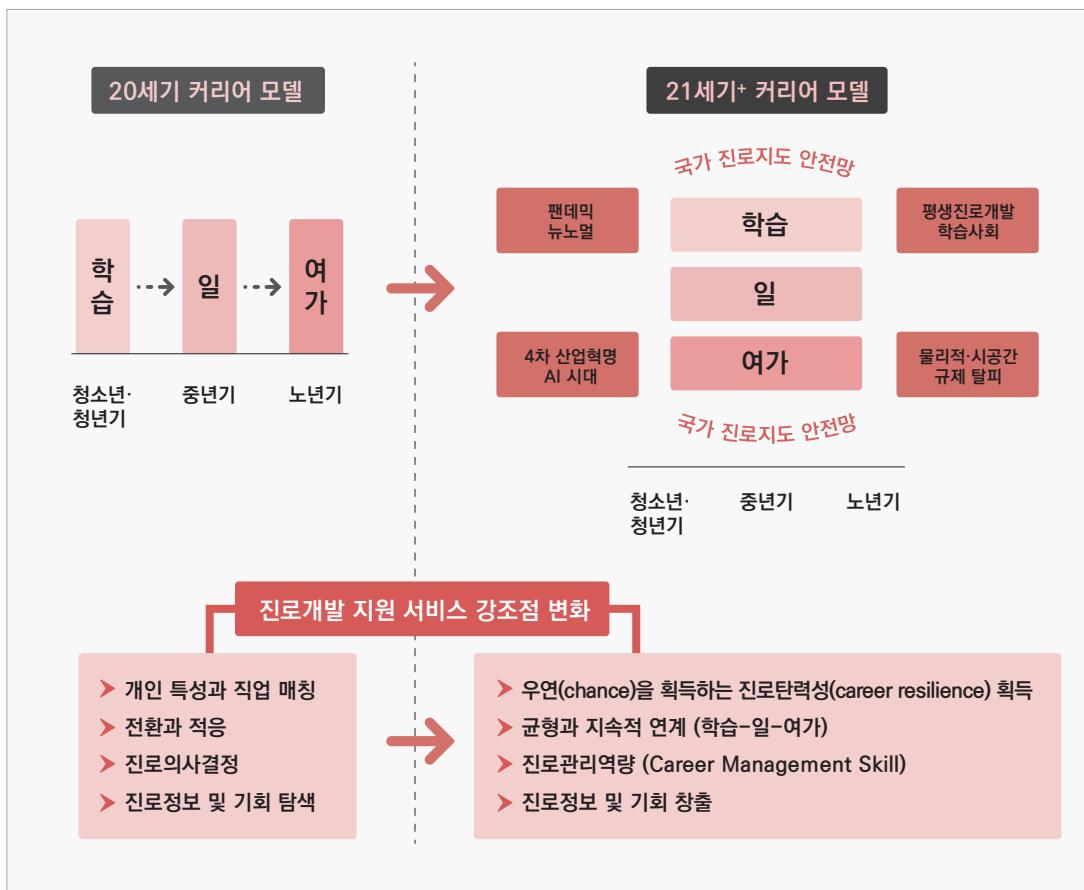
2)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고등교육 이수율은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미래 커리어모델은 「학습-노동-여가」 상호 융합·연계의 평생 동시다발적 수행

「학습-노동-여가」의 분절적 형태 극복을 위한 새로운 평생학습 아젠다 필요

과거엔 개인의 커리어모델이 생애 단계에 따라 청년기에는 학습, 중년기에는 일, 노년기에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 「학습-노동-여가」의 분절적 형태였음. 반면, 미래는 「학습-노동-여가」가 상호 융합·연계되면서 평생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으로 강조됨. 따라서 직업세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강조점도 과거와 달리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 진로지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21세기+ 커리어 모델 핵심에 위치한 국가 진로지도안전망



[출처] Lee, J. Y.(2021). Career Development, Is it really important issue in Pandemic era? Keynote speech In 44th IAEVG International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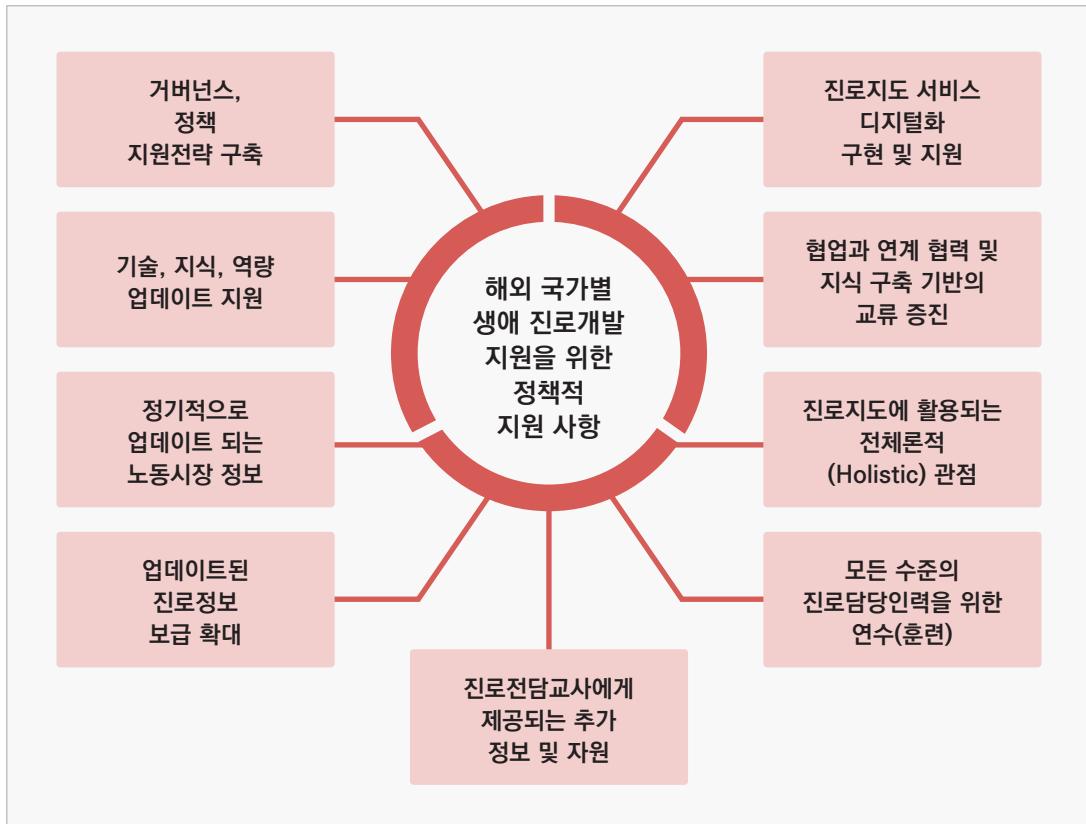
02



해외 국가들은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 협업과 협력을 통해 학생과 성인을 나누지 않고 통합적인 진로지도를 정책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각 분야별 공공정책들이 상호 다른 영역이 아니고 상호 연계되어 있어 교육-고용-복지 등의 정책이 전체적 관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고리는 개인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적 관점의 동일성이다. 모든 공공정책에서 진로개발지원 인력의 지속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신뢰롭고 정확한 진로정보를 수집·분석·보급·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혁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달방식을 실천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

해외 국가별 생애 진로개발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

해외 국가들은 모든 이의 생애 진로개발 지원을 위하여 학령층(학생)과 비학령층(성인)을 나누지 않고 통합된 전체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진로지도를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아래는 해외 국가별 전 생애 진로개발 지원에 있어 주요 지원정책 영역을 정리한 것임(이지연 외, 2022).



[출처] Cedefop et al. (2020). Note on lifelong guidance and the COVID-19 pandemic: Responses from Cedefop's CareersNet. pp.29-33 내용을 표로 재구성.

해외 국가별 생애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 및 내용 요약

지원 사항	내용	적용 국가
거버넌스, 정책, 지원전략 구축	• 국가 생애진로개발 지원 권장 사항 검토 및 이행	아일랜드
	• 국가 진로지도 지원 전략 및 구조(mechanism) 현황 파악	프랑스
	• 진로지도 예산 지원 확대	몰타
진로지도서비스 디지털화 구현 및 지원	• 진로지도에서의 전자 거버넌스(e-governance) 및 디지털화 지원	독일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전면 진로지도서비스 디지털화 구현	터키
협업과 연계·협력 및 지식 구축 기반의 교류 증진	• 진로지도 현황, 성과, 권장 사항 파악을 통한 증거 기반의 진로지도 강화	영국
	• 주요 진로지도 제공 기관 간의 국내외 교류 강화	독일
	• 전문 진로 담당인력이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 및 실무자(practitioners) 대상 교육, 훈련 제공 및 부처 간 교류 증진 역할 수행	덴마크
	•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및 조정 향상	에스토니아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역 진로 전담 기관과의 협력 강화	몰타
	• 진로지도 사례 발굴(수집) 지원	독일, 영국
진로지도에 활용되는 전체론적 (Holistic) 관점	• 진로지도서비스 방식의 다양화 지원	몰타
	• 팬데믹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양상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진로지도서비스 제공	터키
모든 수준의 진로 담당인력을 위한 연수(훈련)	• 전 공공 부문에서 학령층 대상 진로지도서비스를 지원하는 진로 담당인력을 위한 연속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CP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제공	아일랜드
	• 진로 담당인력 연수(훈련) 지원을 위한 국가보험기금(National insurance fund) 마련	덴마크
	• 진로 담당인력의 핵심역량 지표 업데이트(예. 유럽 및 진로지도 및 상담 혁신 네트워크; NICE), 공공고용서비스의 전문 진로상담사 역량강화 및 이력 사항 업데이트	독일
진로전담교사에게 제공되는 추가 정보 및 지원	• 진로전담교사가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웹사이트, 매뉴얼, 책자, 자료 등을 제공하며 학교 간 진로지도 우수 사례 공유 활동 촉진	에스토니아
	• 진로전담교사의 비대면 진로지도 방식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활용 정보 안내	세르비아
업데이트된 진로정보 보급 확대	• 진로지도서비스 이용자 대상별 맞춤형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보급 확대	독일
	• 고용주와 구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로지도 디지털화 이용 추진에 대한 인식 제고	루마니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노동시장정보	• 접근 이용성이 편리한 진로지도서비스 증진에 필요한 최신의 노동시장정보, 교육,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보편적 ICT기술 강화	아일랜드
	•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최신 노동시장정보 업데이트	터키
기술, 지식, 역량 업데이트 지원	• 교육 및 훈련 부문에서의 진로개발 및 진로관리역량 향상 보장	아일랜드
	• 사회적 이슈 혹은 위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지도서비스의 유연성, 적응성 및 탄력성 강조	그리스
	• 교육 및 고용 부문의 디지털화 전환에 따른 구직절차와 기술개발 지원체계 마련	
	• 진로상담 내담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고용 관련 구직정보, 기술 등 진로 준비에 필요한 종합상담 제공	몰타

[출처] Cedefop et al. (2020). Note on lifelong guidance and the COVID-19 pandemic: Responses from Cedefop's CareersNet. pp.29-33 내용을 표로 재구성.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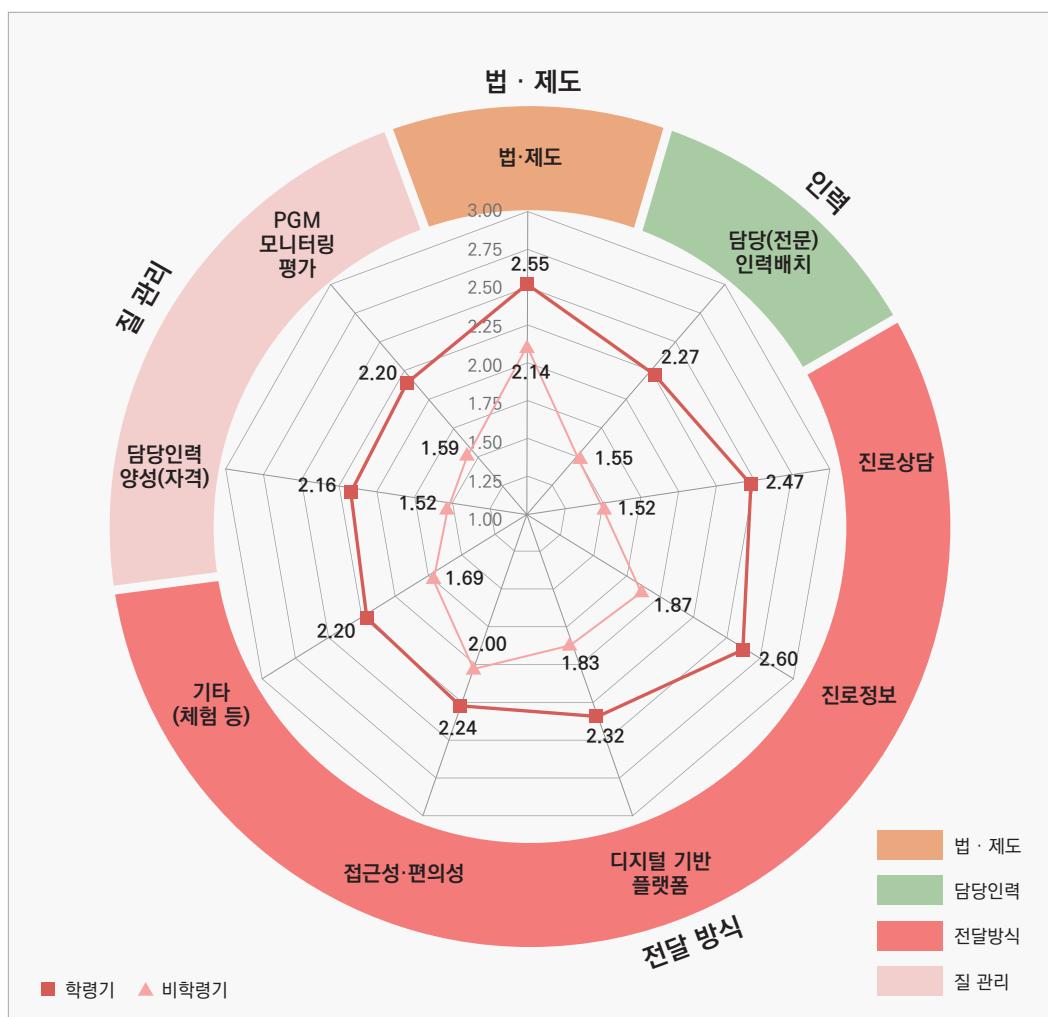
국가진로지도 안전망의 4대 영역과 9개의 세부요소를 비교했더니 학령층과 비학령층의 진로교육에서 진로상담 0.95점, 진로정보 0.73점, 담당(전문) 인력 0.72점 순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궁극적으로 성인대상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더 많은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성인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 전문 담당인력 양성과 배치, 진로상담 및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질 관리, 국민들의 인식 제고, 보편적인 평생 진로개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진로지도안정망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학령층과 비학령층

국가가 주도하는 평생 진로교육을 「국가진로지도안정망(National Career Guidance SafetyNet)」이라 명명하며 학령층(초·중등·고등단계)과 비학령층(평생학습기관·PES·직업훈련기관)의 4대 영역(①법·제도 ②담당 인력 ③전달 방식 ④질 관리)과 9개 세부요소를 상호 비교한 연구 결과(이지연, 2022)를 다음 그림에 제시함.

모든 영역에서 비학령층의 낮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진로상담 영역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큼(학령층 2.47점, 비학령층 1.52점). 그 다음으로 진로정보(학령층 2.60점, 비학령층 1.87점), 담당(전문)인력 배치(학령층 2.27점, 비학령층 1.55점) 등의 순으로 차이를 보임,

학령층/비학령층 비교 결과 – 4개 영역 및 9개 세부 요소



[출처] 국가 진로지도 안정망의 학령층과 비학령층 격차. 이지연, 진로교육연구, 2022 vol 35, No.4
<https://doi.org/10.32341/JCER.2022.12.35.4.1>

생애 전반에 걸쳐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정책 필요

성인 진로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의 혁신 방향

평생학습은 성인들이 자신의 진로개발을 지속적으로 관리·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보다 명확한 지향점을 요구하고 있음. 첫째, 평생학습은 성인 평생학습자가 자신의 진로개발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둘째, 평생학습은 성인 개인의 소질·적성·특성에 맞게 진로교육의 내용·방향·속도를 맞춰야 함.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시·공간의 틀과 규제를 벗어나 생애 전반에 걸쳐 미래의 삶과 직업을 창조할 수 있는 혁신적 방식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이 필요함.

진로개발 지원체제의 4개 핵심 영역

평생 진로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담당 인력, 정보전달(진로상담, 진로정보, 플랫폼, 접근성 및 편의성), 그리고 질 관리가 필요함.

진로개발 지원체제의 핵심 4개 영역 및 구성요소

영역 및 하위 요소		정의
① 법·제도		국가 수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으로 개인의 진로개발 지원을 명시한 법률, 규칙, 조례 등의 체계
② 담당 인력		개인의 진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배치된 자격(전문성) 있는 담당자
③ 전달 방식	진로상담	내담자 진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면대면·집단·온라인·채팅 등의 서비스
	진로정보	개인 생애 전반 진로개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모든 정보를 총칭. 진로정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며 개인의 자기이해 정보로부터 진학(평생학습)·취업·직업전환·직업적응·은퇴준비 그리고 여가 및 취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역사회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신뢰롭고 정확한 자료 및 데이터
	디지털 기반 플랫폼	진로정보망의 확대 개념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진로개발 이용자(수요자) 간 진로 관심사에 따라 정보와 서비스를 상호거래·교환 할 수 있는 미래형 인터넷 기반 공간이며, 동시에 개인의 진로 요구에 맞춘 정보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 기반 진로개발 지원 학습 공간
	접근성·편의성	· 접근성: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필요한 진로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진입로 · 편의성: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의 형식과 과정이 개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것
④ 질 관리 (Quality Control)	담당인력 양성(자격)	진로개발 지원 담당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수요자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 및 자격 체계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국가 주도 진로개발 프로그램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수요자 반응을 모니터링·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더 나은 진로개발지원으로의 질적 수준과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는 장치

[출처] 국민 역량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평생진로지도안전망 구축연구:「교육(훈련)·고용·진로지도(상담)·고용서비스」연계 중심, 2022, 이지연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생학습시대, 비학령층 진로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대안(1)



성인 진로개발 지원의 강력한 의무적 실행 수준을 명시한 평생학습 법령 개정·보완·신설

평생학습 법령 안에 성인의 진로개발 지원 역할을 명시하고 「진로교육-진로정보-진로지도(상담)」 의무 사항이 포함된 법 시행령 개정 및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해야 함. 또한 「교육-고용-복지」 정책이 상호 협업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명시하고, 비학령층 성인 평생학습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진로개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권리를 부여해야 함.

평생학습기관에 성인 진로개발 지원 전문 담당인력 배치를 위한 역량·자격 명시화·구체화

성인 진로개발 지원 전문 담당인력이 평생학습 기관에 배치되며 이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원 체제의 혁신적 개혁이 필요함. 이를 위해 평생교육 안에서 성인대상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담당 인력의 역량·자격, 그리고 이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함양에 관한 지침까지 법령 안에 명시화하여 학령층 진로교육과의 격차를 줄이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혁신기술을 활용한 진로지도(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등의 전달방식 시스템화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구축 등의 민간기업 혁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진로정보 생성·보급 및 이를 활용한 비대면 진로상담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정보화 예산을 확보해야 함. 성인 수요자 진로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 인력 풀을 구성 및 운영하고, 효과적인 상담 매칭을 위한 관리시스템 및 진로상담서비스 모델 개발과 진로상담사를 위한 노동시장정보(LMI)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평생학습시대, 비학령층 진로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대안(2)

성인들의 진로탄력성 (career resilience)을 강조한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 구축

성인 평생학습자들이 예기치 않은 역경과 실패를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이 진로지도 프로그램 안에서 강조되어야 함. 성인들은 미래 예측할 수 없을 속도로 변화하는 직업세계 속에서 평생 직업생활을 영위하며 다양한 진로장벽을 경험하게 됨. 이를 타개하고 새로운 우연적 기회를 만들며 진로를 개척하는 개인의 탄력적 역량이 필요함. 따라서 진로탄력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교육·훈련·평생학습 모든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함.

성인 진로교육 「모니터링·평가→피드백 →정책보완」을 통한 질 관리

평생학습 정책의 세심함은 국가 주도의 질 관리 과정에서 「모니터링·평가→피드백→정책보완」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의미함. 한 예로 매년 학령층대상의 「진로교육 실태조사」를 대학·평생학습기관·직업훈련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최종 수요자 진로개발 요구에 부응하는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현장에 피드백하여 관련 정책이 수정·보완되는 세심한 질 관리 과정이 필요함.

성인 진로개발 지원이 국민의 학습역량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는 인식

비학령층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은 개인이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일하며, 고숙련을 형성하는 과정 안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진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개인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관리역량을 촉진함. 궁극적으로 진로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학습역량과 행복한 삶의 질을 이루는 필수적 요건으로 작동함. 따라서 성인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확산이 필요함.

국가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평생 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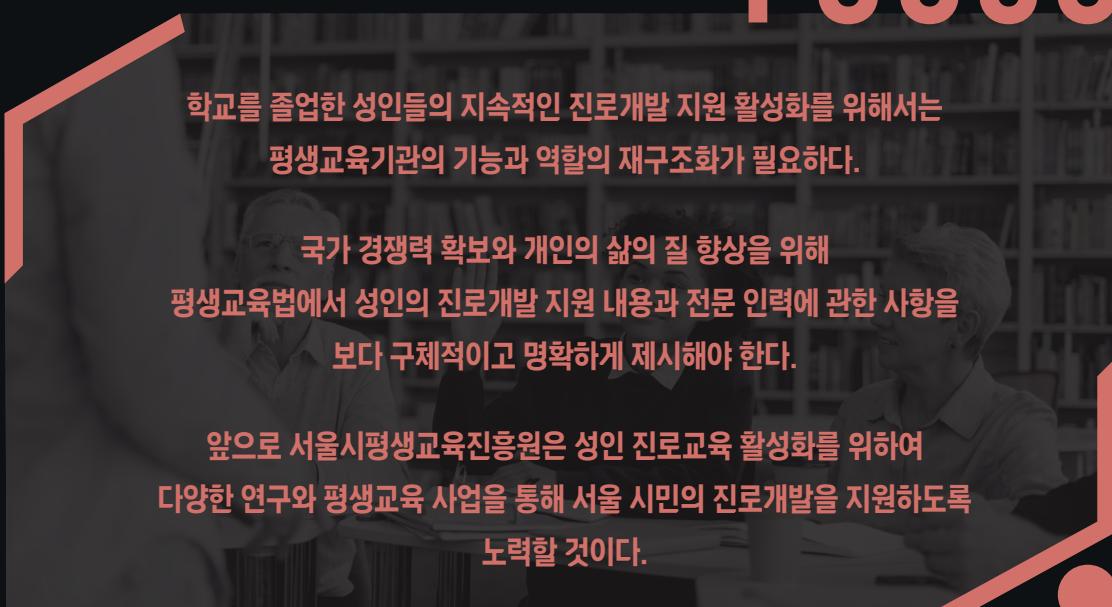
학교를 졸업한 비학령층의 진로개발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혜라 할 수 있음. 특정한 연령대의 선별적 수혜와 특수적 선택이 아닌 어느 누구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주하는 진로장애를 해결하고자 할 때,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책무와 공공성을 가짐. 따라서 국민의 평생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체제가 우선 구축되어야 함.

전 생애에 걸친 성인 진로교육중심의 평생학습체제 재구조화

국민의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을 위한 지원은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평생학습 역량과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한다. 이에 해외 국가들은 학령층과 비학령층을 나누지 않고, 통합된 시스템에서 전생애에 걸친 진로지도를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학 입시와 학위, 지식 및 기술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비학령층 성인의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 설계를 위한 진로개발 역량 향상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

특히, 학령층의 진로교육 인프라와 비학령층의 진로교육 인프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큰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진로교육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진로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개인의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진로교육 활성화는 매우 시급한 국가 아젠다로 강조되어야 하며, 성인들의 평생학습체제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FOCUS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의 지속적인 진로개발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 확보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법에서 성인의 진로개발 지원 내용과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평생교육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소개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는 주목할만한 평생학습 이슈를 선정하여 WHERE, WHO, WHAT, HOW, WHY 5가지 카테고리로, 평생학습이 우리 주변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과 현황을 보여주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안합니다.

집필 : 이지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3대 진로교육학회장)

정리 및 편집 : 이은주, 정미란(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

참고문헌

- 교육부(2021). 2021년 평생교육백서.
- 이지연(2002). OECD 진로정보·지도 및 상담 서비스 정책 협력사업(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권효원(2021). 한국의 진로교육 혁신 방안 연구: 해외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제34권 4호,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지연·이동혁·김기현·권효원·안중석(2022). 국민 역량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평생진로지도안전망 구축 연구 「교육(훈련)-고용-진로지도(상담)-고용서비스」연계 중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지연(2022). 국가 진로지도 안전망의 학령층과 비학령층 격차. 진로교육연구, 제35권 제4호, 1-20. 한국진로교육학회.
- CEDEFOP(2008). Career development at work: a review of career guidance to support people in employment. Cedefop Panorama series: 151.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23 No.3, pp. 108-118.
- CEDEFOP(2020). Note on lifelong guidance and the COVID-19 pandemic: Responses from Cedefop's CareersNet.
- ILO(2020).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20: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jobs, International Labor Organisation.
- Lee, J. Y.(2021). Career Development, Is is really important issue in Pandemic era? Keynote speech In 44th IAEVG International Conference.
- OECD(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Bridging the gap, Paris: OECD Publishing.
- OECD(2018). Co-ordinating educational levels and sectors to improve student trajectories", in Responsive School Systems: Connecting Facilities, Sectors and Programmes for Student Success, Paris: OECD Publishing.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